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불성에 일체놓고 뉘 때 참자기 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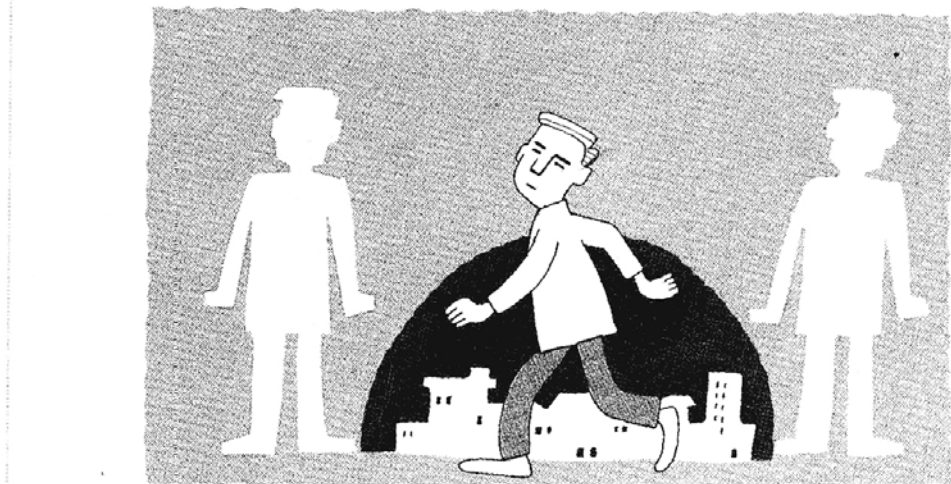
토끼 치어 살생했어오

살생의 인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마음선원 진주 지원에서 늦게 시내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드는 걸 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토끼가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밟지 않으려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다 볼시다.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가 울렁거리면서 토끼가 바퀴에 깔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밟았구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한순간에 머리를 박고 있는 5분 정도를 멍을 앓고 앉아 있었습니 다. 불교를 접하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론으로는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라고 관하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내가 토끼를 죽였다고 생각하니 순간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내려보니 조그마한 토끼의 참자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껍데기는 이쪽에 있고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생각에 근처 풀숲에 묻어주고 풀로 잘 덮여주고 나왔습 니다.

이 부인을 얻었는데, 어떻게나 자기 어머니를 구박하는지 불도 제대로 때드리지 않고 먹을 것도 제때에 주지 않으니 그 걸 보는 아들의 심정은 참담했죠. 하루는 어머니와 부인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가지 지혜를 짜내고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날 일부러 장애를 갖다오는 척 하면서 부인을 불러서는 낚시말로 "여보, 남이 들을까봐 무섭소"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장애 갖더니 사해 통통히 쥘 노 인네들을 데리고 와서 파는데 소 30마리 값을 받더라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귀에 다 대고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은 어때!" 하나 "아유, 당장 해야죠"하고 아주 좋

"나는 '공'에서 왔고 '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곳이 정통자리니 또 찾을데 없어요"

아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팔로지 시어머니를 살찌워서 장애 내다 팔 일념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모시니, 시어머니는 병이 낫고 살이 찌고 좋아서는 매일같이 손주를 업고 동네에 나가 며느리 칭찬하기에 참이 마름니다. 그걸 보는 아들은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며느리 생각에 이제는 됐겠다 싶어 다음 장애는 팔리라 마음먹었는데 아, 그러던 차에 나라에서 호부문을 세워준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 어렵합니까. 이제 는 남편이 팔아라 해도 못팔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호부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편이 오직 한마음으로써 얼마나 연구를 잘 했으면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양면을 다 살렸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처럼 일념으로 쫓고 오직 '살찌워서 장애 갖다 팔겠다. 팔면 돈 을 받는다'는 이 한가지만 생각하고 들 어가란 얘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저 한군데 밖엔 없으니까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데



그림·최주현

이승·저승 양면 다 들고나야 생사벗어나 내가 나온 진여본체 자리가 바로 '주인공'

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가 나온 자리로 다시 파고 들어: 들고나는데 손색이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양면을 들고 나고 원래 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 났을 이룰고 있다는 것. 오직 자기 뿌리 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직접 들어가는 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오직 한군데를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 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 능력이게 자재할 것이요. 또는 세세생 생에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새 것을 입력해 놓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보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짐하면서도 놓는 자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다보니 놓긴 놓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놓이지 않아요. 애매할 때가 많습니 다.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나온 자리에서 뉘 놓으라고 말씀 드리고 또 말씀드렸지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하지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차 질문을 하시니까 또 말씀 드리지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올때 는 어디서 나왔고 내가 사라질 때는 어디로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걸 아시기는 어려우실테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질 때 도 공에서 사라집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늘 놓고 싶다고 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통의 자리이니 실은 어디 또 찾을 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에서 나왔고 공으로 사라진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님 들도 누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이 모든 생활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고 들어고 하는가? 를 지켜보아야 합니 다.

모든 걸 몰록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정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나오게 하려 면 들고 내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공에서 나왔고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름으로써 이론도 많아지고 방향하게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다가는 어느 때나 맛을 보게 될지 아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럼 왜 무조건이냐? 첫째로 자기를 몰 록 죽이고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생조차 이롭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만민이 하나로 되 고 이 대공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일체는 다 한자리에서 나왔다가 한자리 로 돌아 가는데 내가 소공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풀이 아닌 도리를 알겠으며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이치 를 터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자구 이론을 따지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방향을 하면 놓는 것도 해도 놓은 게 아니고 공덕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하고, 자기 죽는 셈치고 생각하기 이전 불성 그 자체에 일체 를 맡겨 놓고 풀만 뒤라는 것이지요. 그 것이 다시 자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게 옳지 않을까요? 믿음이 곧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뉘 믿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알고 믿어야 하는 게 아 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림자요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지 말고 이렇게 헛바퀴 돌듯이 들고 내고 하는 그 이전, 생각하기 이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활용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생활속의 불교 (175)

번뇌의 벽돌을 쌓고 모아서 어떤 집을 지으려나.

"옛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으니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 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트여 대낮처럼 환하리라.' 하셨다. 이 공부를 하려거든 분별하여 취사선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상을 상으로 밝게 보되 상에 물들고 상에 얽매고 상에 집착해서는 안되 거늘, 역으로 온 증일 이것은 좋고 저 것은 나쁘고 하는 식으로 분별하며 살고 있다면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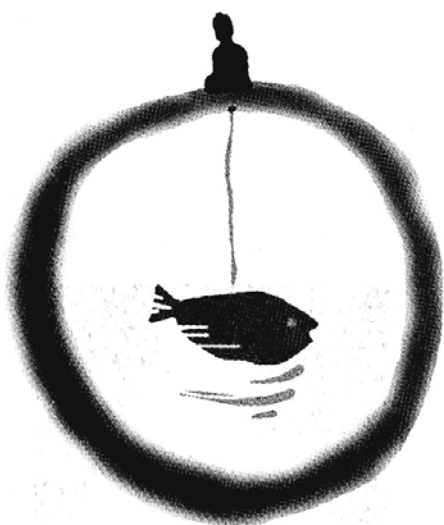
한생각 잘못하면 팔만 사천 번뇌가 될 구멍을 통해 들락거리고, 한생각 잘 내면 팔만사천 부처가 들락거리다."

한생각 바르게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셨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사람이 한 눈 팔지 않고 묵연히 길을 따라 걸으

면 정상에 이를 수 있듯이 깨달음의 길도 그러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간다. 잘 다듬어진 등산로를 버리고 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꽃구경 물구경에 넋을 잃고 갈 길을 잊기도 한다. 길은 어렵지 않은 데 한눈을 팔고 있으니 정상은 가마득하게 된다. 아예 왜 산길로 들어섰었는지를 잊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분별심으로 맞고 분별심으로 보낸다. 잠시도 분별심이 멈추질 않는다. 처지에서,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게 한결같이 분별하고 간택하는 마음 뿐이다. 싫다 좋다는 분별, 이진 바람직하고 저진 마땅치 않다는 간택. 우리는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삶은 경계, 마뜩찮은 일이 닥아오면 곧 번민에 휩싸인다. 마음은 번뇌로 들끓게 되고 삶은 갑자기 괴로움으로 변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란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에 얽매인 노예 같은 삶인 셈이다.

맞닥트리는데 경계 속에 번뇌의 요소



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계는 경계일뿐 거기에 번뇌란 애초부터 없다.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고 달리 표현 하면 정보요 재료일 뿐이다. 경계가 번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오관(誤判)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생각, 개인적인 고정관념, 감각적인 느낌들이 단지 정보요 재료일 뿐인 것을 가공하고 엄색해서 좋은 것 싫은 것으로 분별하고 간택하려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번뇌가 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황금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가치의 척도 또는 저장 수단으로 보질 않고 자만심이나 성취 의 상징으로 본다.

옷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몸을 보호하는 외피로 보질 않고 자기과시의 치장물로 본다.

음식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 이상으로 미각에 집착한다.

자동차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 의 상징으로 본다.

모든 대상을 우리는 그렇게 본다. 바로 무지인 것이다. 고로 무지는 분별로 분별은 번뇌로 이어져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도의 길로부터 멀어져 간

다. 그뿐 아니라 번민하지 않아도 될 일에 속을 썩히느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결코 어렵지 않은 도의 길은 그래서 더욱 까마득해지고 그 길은 무척이나 어려운듯이 느껴지게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번뇌를 벽돌 쌓듯 쌓고 모아서 그걸로 자아라는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오가는 경계를 간택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다. 어찌 삶이 괴롭지 않겠나. 그러나 도의 길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설명했고 조사들이 증언했다. 한생각 바르게 돌리면 그 순간 부터 도의 길은 내 집 앞으로 펼쳐있 음을 알게 된다고 하셨다.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경계를 다만 경계로 보자.

'물은 날보고 물처럼 살라하네.' 라고 했듯이 경계라는 물은 다만 내게로 흘러 왔다가 조만간 흘러갈 것에 불과하 다고 보자. 그러면 그 경계 속에 담긴 재료와 정보가 세상스레 보이기 시작 할 것이다. 나는 이미 여덟겹의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협찬: 김정운